

“불자들의 통일보살행 이끌 것”

민추본 창립 9주년... 조선불교도연맹 축전

북쪽 및 북한 대륙
간담도미사일 발사
로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불교계 남북 교류를
담담해온 민족공
동체추진사업본부
창립 9주년을 맞았다.



6월 7일 봉은사에서 9돌을 맞은 민추본 관계자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사업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는 6월 7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명진 스님을 비롯해, 집행위원장 법경 스님, 지도위원 진화 스님, 6·15선언 남북위원회 김상근 상임대표,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명진 스님은 기념사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극도의 긴장과 갈등이 조성돼 있다. 정부의 교류 단절에도 민

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적 왕래는 지속돼야 한다”며 “민추본은 불자들이 통일 보살행에 나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했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은 이날 축전을 보내 “민추본은 남북 연대사업을 적극 벌여 불교도들의 신뢰와 단합을 두터이했다. 향후 연대사업이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리라 확신한다”고 기원했다.

김상근 대표 등 각계 측사에 이어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이 2부 창립기념 강연회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과 불교계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노덕현 기자

“생명에는 분별이 없습니다”

오체투지 순례단 임진각서 회향... 북측 초청에도 통일부 불허

이 땅의 사람들과 평화, 그리고 못생명을 위해 가장 느리고 낮은 자세로 기어온 오체투지순례단이 6월 6일 124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과 문규현 신부, 전종훈 신부 등 순례단이 장정을 마친 곳은 신탄실의 아픔을 담고 있는 임진각 망배단이었다.

당초 순례단은 6월 15일 북한 묘향산 상악단에서 한반도 평화 기원 천제 봉행으로 순례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북한측의 초청 및 허가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방북허가를 내지 않아 이날 회향할 수밖에 없었다.

망배단에 도착한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전종훈 신부는 마지막 일배를 올린 뒤 눈물 속에 서로를 안았다. 순례단의 회향마당에는 용산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서로를 위로했다.

회향행사는 못생명을 위한 합동 위령제와 108배 등으로 진행됐다. 화계사 장경 스님 법고를 시작으로 진혼무와 영령을 위한 묵념, 천주교와 불교의 추도 및 천도제, 108배 순으로 봉행했다.

수경 스님은 직접 집전한 천도제에서 “이날에는 죄와와 남북이 있을



6월 6일 124일간의 순례를 마치고 임진각 망배단에 도착한 수경 스님과 문규현(오른쪽)·전종훈 신부가 포옹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지연정, 생명에는 구별이 없다”며 “한반도 갈등의 끈을 치유하는 화해 평화의 길, 살아 숨쉬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방북 순례 의사를 밝혔다.

순례단은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권력 존재 자체가 분열의 원인이라면 스스로 진퇴를 엄중히 판단하는 것이 역사와 민족을 위한 길”이라며 “순례단 또한 고생의 길을 계속 가겠다. 우리들의 기도는 묘향산 상악단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례단은 2008년 9월 4일~10월 26일 지리산 하악단에서 계룡산 중악단까지 53일간 1차 순례를 봉행한데 이어 3월 28일부터 다시 순례를 재개해 71일간 순례를 이어왔다. 순례거리는 하루 약 4km 씩 총 400km에 달하며, 1만여 시민과 불자들이 순례에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서불대 정상화 시켜라”

재가연대·우리는선우 등 성명서 발표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와 우리는선우(대표 성태웅) 등 불교단체들이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사장 지옥, 이하 서불대)의 정상화를 위해 범불교계 수습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사단법인 보리, 우리는선우,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6월 10일 ‘현 이사회는 폭력과 탈법행위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불교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교과부의 행정처분이 있었음에도 서불대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계종 호법부는 지옥 스님 등 서불대 이사로 참여중인 조계종 스님들에 대한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교단체들은 △교과부 행정처분 즉각 수용 △학교문제로 불교계 명예를 훼손시킨 이사회의 사과 △범불교계 수습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안평대군 ‘지장경 금니사경’ 반환요청

혜문 스님 하버드대 방문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이 5월 28일 미국 하버드대 아서 서클러 박물관(관장 로저 마우리)을 방문해 안평대군이 쓴 ‘지장경 금니사경’ 실물을 확인하고 반환요청서를 전달했다.

혜문 스님은 로저 마우리 교수에게 해외유출문화재의 반환을 촉구하는 남북 불교계가 합의·작성한 ‘남북 불교계의 공동요청서’를 전달하며, ‘지장경 금니사경’ 등 헨더스 컬렉션 일체의 반환을 요청했다. ‘지장경 금니사경’은 세로 40.5cm 가로 21.6cm(표구포함)의 푸른색 감지에 금니로 <지장경>

하버드 대학 측은 “안평대군 금니사경은 그레고리 헨더슨이 한국에서 외교관 생활 중에 수집한 작품으로 2007년 12월 헨더슨의 미망인 사망 후 헨더슨 재단이 소유하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진품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헨더스 컬렉션 반환 요청에 대해 로저 마우리 교수는 “한국인에게 이 작품이 소개돼야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한국에서 전시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해, 구체적인 반환논의에 앞서 인대행식의 한국 전시는 단시일내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동섭 기자

이 7행 20줄의 규격으로 적혀있다. 표구의 비단에는 ‘안평대군 진적’이란 감정이 쓰여 있다. 조선 전기 최고 명필 안평대군의 글씨는 일본 천리대학 소장 ‘몽유도원도’ 발문과 분실된 ‘소원화개첩(국보 제288호)’ 등이 현존한다.



하버드대 로저 마우리 박물관장에게 안평대군이 쓴 ‘지장경 금니사경’ 반환요청서를 전달하는 혜문 스님.

종교화합 디딤돌 ‘오체투지’

걸림돌 MB 종교차별... 종교인 네트워크 조사

2008년 종교화합의 디딤돌은 오체투지 순례로, 걸림돌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종교차별이라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여불교재가연대’를 비롯해 개신교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와 가톨릭 ‘우리신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는 시민 114명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디딤돌 1위에는 오체투지 순례단, 2위는 종교교류단체 활동가 3위는 종교인 쏠집회와 사회문제 공동 대응이 꼽혔다.

반면 걸림돌 1위에는 MB 및 공직자 종교차별 2위는 배타적 종교인 3위는 맹목적인 신도가 뽑혔다. 노덕현 기자

불교시민사회 워크숍 열린다

7월 9~11일, 불교사회운동 등 논의

조계종 사회부(부장 세영)는 7월 9~11일 2박3일간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불교시민사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2004년 금강산 연수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는 워크숍에는 조계종 사회부를 중심으로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인드라 망생명공동체, 경발련 등 불교NGO 상근 활동가 60여 명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한다. 워크숍은 ‘한국사회 변화와 불교

사회운동 방향 모색’의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종교자유와 종교평화’ ‘4대강 정비사업과 우리의 과제’ 등 강연이 진행된다.

강연과 더불어 참가자들은 마곡사 순례를 비롯해 물놀이 등 문화마당, 서산 마애삼존불·보원사지 탐방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교류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참가신청 마감은 6월 25일. (02)2011-1822 노덕현 기자

불교·교육선지식 사상 조명

용봉 대종사 열반 18주기 추모법회 봉행

스님이자 불교 지도자, 교육행정가, 문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용봉 대종사(금당 이재복) 열반 18주기 추모법회가 6월 5일 대전 연정국악회관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승정원장 남파 스님, 총무원장 운산 스님, 동방불교대학장 영우 스님 등 50여 스님과 설동호 한밭대 총장(보문동장회장), 김영관 대전부시장, 송하설 前 단국대부총장(사임회장) 등 용봉 대종사의 제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6월 5일 대전 연정국악회관에서 열린 용봉 대종사 열반 18주기 추모법회의 테이프 컷팅 장면.

법회는 1부 추모문집(전 8권) 봉정식, 2부 추모학술회의(영우 스님, 김방통 교수, 오철로 교수가 용봉 대종사의 불교, 문학, 교육사상 조명), 3부 추모 서화전으로 진행됐다. 김성우 기자

도지정문화재 불상 도난... 행방 묘연

거제도 세진암 삼존불 2점

거제도 세진암에 안치된 경남도 지정 문화재인 불상이 도난당해 행방이 묘연하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6월 8일 “지난 3월 오전 1시경 거제시 거제면의 전 통사찰인 세진암에 괴한이 침입, 경남도문화재자료 제325호인 목조여래삼존불좌상 3점 가운데 양옆에

있던 불상 2점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CCTV분석 등 끈질긴 추적 끝에 10월 61세 정모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불상의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상을 낚겼다는 제3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초판 22쇄의 스테디 셀러!!

삶은 꿈가 아니다

삶은 꿈가 아니다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금강경(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천수경(한글/영어)